

**이기는 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함**

10/17 월요일

### 아침의 누림

**창 2:9**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렘 15:16**

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

**시 119:147**

147 저는 새벽을 고대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요 6:57, 6:63**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

생명나무를 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만질 때마다 불을 만지게 되며 죽음을 만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하려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 만일 한 부부가 서로 다투고 있다면, 우리의 타고난 관념은 그들을 권면하여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칙을 알고 있다면, 그들 에게 인내하고 겸손하라고 권면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칙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부를 생명 안으로 이끌 것이다. 오직 생명나무 를 만지는 이들만이 그들의 생활과 일이 새 예루살렘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죄 있는 이들은 불 못에 들어갈 것이다. 도덕적 이기만 한 이들도 불 못에 들어갈 것이다. ... 생명나무 안에는 사랑도 있고 겸손도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온 사랑과 겸손의 결말은 불 못일 것이며, 오직 생명나무 에서 나온 미덕만이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이다.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16 장, 96-9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소가 풀을 먹듯이 '되새김질'하는 것이다(레 11:3). ... 우리가 너무 빨리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누림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되새김질'한다면, 우리의 누림은 증가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 읊조릴 때 자연스럽게 기도할 것이다. ... 더욱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하게 된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대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보다 더 느리고 섬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기 20 장 2 절을 읊조릴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이심을 기억해라. 그분은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속박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제 너는 나왔다. 아멘! 오, 주님, 저를 속박에서 이끌어 내신 당신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자신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도 누림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경배하거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자신을 꾸짖을 것이다. ... 참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살아 있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읊조린다면,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확실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취하는 사람은 그것을 죽은 문자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숨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

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조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들이쉬며, 그분을 영적인 자양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말씀을 율조림에 관하여 시편 119 편 147 절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새벽을 고대하며 부르짖고 / 주님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작가가 새벽 전에 일어나 부르짖 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음을 본다. ... 말씀을 율조리는 것은 단지 묵상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누리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과 대화함 으로서 말씀을 율조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조린다면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57 장, 707-7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16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2 권, 생명나무, 1, 8-9 장

10/18 화요일

### 아침의 누림

겔 3:1-4

1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2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은 나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주셨다.

3 그러시고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를 불리고 너의 속부분들을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그 달콤함이 꿀과 같았다.

4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

엡 3:8, 16-17a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히 3:12, 15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5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히 4:2

2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들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계 10:9-10

9 내가 그 천사께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이 너의 배는 쓰게 하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10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는 쓰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먹은 후에는 또한 소화를 잘해야 한다. ...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또한 합당한 방식으로 영적으로 그분을 소화해야 한다. 합당하게 소화한다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여러분의 신체의 각 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 ... 소화 불량은 음식물을 위한 통로가 없음을 뜻한다.

몇몇 사랑스러운 성도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이것에 대한 입맛과 욕구를 잃는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안에 받아들인 후에 그들 속에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주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통로가 없다. 주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 우리는 “주님, 제게 공활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내적 부분들을 포함한 전 존재가 당신께 열려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 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6 장, 30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채우신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동안, 이 실지적이고도 살아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타고난 존재를 만지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이 부분만큼은 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머무십시오. 주님은 저의 손님이시며 거실에 머무셔야 합니다. 제 개인의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저를 위한 곳이지 주님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화 불량에 있음을 의미한다. 영적인 음식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도달하실 길이 없다. 음식이 여러분의 내적 부분들 안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화 불량을 걸린다.

어떤 젊은 형제는 주님을 부른 후, 마침내 이 말하는 방식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만일 그가 이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 더디다면, 이것은 그가 주님께서 통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부른 후 여러분 안에 어떤 감각이 생긴다면, 곧 어떤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의미하고, 여러분 안에서 소화 작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내적 감각을 따라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감각을 따른다면 기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좋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입맛을 가질 것이다. ... 만일 여러분이 내적 감각과 다투다면, 이것은 소화불량을 가져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적 감각에 반응하고 따른다면, 주 예수님에 대한 식욕이 되돌아오고, 여러분의 영적 소화력이 좋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풍성이 여러분의 세포들이 되고, 이 세포들이 자라서 유기적인 조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되고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된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서 있기는 쉽지만 뒤로

물러나기는 쉽지 않다. ... 왜냐하면 충분히 자란 사람은 자기가 먹은 영적인 음식에 들어 있는 모든 영양분을 동화할 좋은 소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먹음으로써 소화하고, 소화함으로써 동화한다. 또한 동화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의 실질적인 영양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결국 자라서 우리의 유기적인 조직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다.

주님을 부른 후에, 즉 그분을 먹고 마신 후에 여러분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열려 있게 해주십시오. 제 전 존재 안에서 통로를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소화력을 가지게 되어 동화를 잘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모든 영양분을 누리고 흡수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실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6장, 305-309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6장; 생명의 체험과 성장, 3장*

**10/19 수요일**

### 아침의 누림

**요 4:34**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 17:4**

4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엡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

**사 43:7**

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마 24:45-47**

45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말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46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47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요 4:32**

32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니,

**빌 1:21**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6:20**

2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진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이다. ... 예수님의 경건한 생활에는 진리, 곧 실재가 있다. 예수님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를 따라 예수님께 배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 장, 433-43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 이 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이며, 절대적으로 실재 곧 진리에 따른 삶이다. 진리란 빛이 비치는 것이며, 빛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일 1:5),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방면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이 하나님의 표현은 빛이 비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리, 곧 실재이다. 이러한 실재에 따른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의 모형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모형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 모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진리에 따라,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주 예수님의 삶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삶은 빛의 비침이다. 빛의 비침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에는 진리가 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형의 본질이 진리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진리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 예수님의 삶은 진리의 삶이었다. 진리는 빛의 비침이다. 빛은 근원이고 진리는 그것의 표현이다. ...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의 모든 면에는 빛의 비침이 있었으며, 그분의 삶은 진리의 삶, 즉 하나님 자신을 비추는 삶이었다. 그 진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틀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틀은 바로 진리이다.

그리스도는 이 틀을 세우시고 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러한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침례 받았을 때, 하나님은 마치 하나의 반죽을 틀 안에 넣는 것처럼, 틀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를 넣으셨다. 우리는 틀 안에 넣어짐으로써 그 틀을 배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신 틀에 따라 그리스도에 의해 살 수 있다.

우리가 복음서들에서 주 예수님께서 형성하신 틀을 읽을 때, 그 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복음서들에 묘사된 틀에 따라 그분을 산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틀의 형상에 따라 빚어지고 이 틀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이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접촉할수록 이 틀에 따라 그분을 더 살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틀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형태 안에서, 곧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형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산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 장, 434 쪽, 47 장, 435-4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47 장; 장로 훈련, 1 권, 신약의 사역, 3 장

### 10/20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빌 1:9-10

9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10 다른 것이 무엇이며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 레 11:3

3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고, 즉 굽이 두 쪽으로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

시 119:15

15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고후 6:14-18

14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이 않으므로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15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한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16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인데, 하나님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 그러므로 “주의 말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였고,

18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먹는 것은 다만 어떤 것을 접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우리 안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 우리의 조성 성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와 조성이 될 수 있다. ...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접촉할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접촉한다면, 그 결과 재조성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6 장, 360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음식을 분별하는 것은 식품을 분별하는 것, 즉 우리가 먹는 것을 분별하는 문제이다. 레위기 11 장에 언급된 동물들은 ... 사람들을 예표한다. 그것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림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0 장 9 절 하반절부터 14 절까지와 27 절부터 29 절까지의 말씀들로 증명된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와 네 귀통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땅의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었다.”(11-12 절) 처음에 베드로는 이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새들이 사람들의 그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 짐승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27-28 절).

우리는 먹을 때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 곧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접촉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레위기 11 장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사람들을 상징하며, 먹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상징한다.

레위기 11 장은 다섯 범주의 동물을 다룬다. 첫째는 가축을 포함하는 짐승이다. 둘째는 수중 동물, 즉 물속에 있는 동물이다. 셋째는 새들, 즉 공중에 있는 동물이다. 넷째는 곤충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어 다니는 것들이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레 11:2-3)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갈라진 굽은 분별력을 상징한다. 말은 갈라진 굽이 아닌 통으로 된 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지를 분별할 수 없고, 어떤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지를 분별할 수 없으며, 어떤 것들이 영에 속한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지를 분별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무엇이 새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무엇이 옛사람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극장에 가는 것은 땅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교회 집회에 가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면,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극장에 가는 것과 교회 집회에 가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한 사람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부족하다. ...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접촉할 때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역량과 힘인 갈라진 굽을 가져야 한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거듭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한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거듭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을 숙고하고 거듭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것을 거듭 생각함으로써 되새김질을 하여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갈라진 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갈라진 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피해야 한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6 장, 359-3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6 장; 성도를 온전케 함과 하나님의 집의 건축, 2, 9 장

10/21 금요일

### 아침의 누림

고후 6:14, 17

14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으므로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17 그러므로 “주의 말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셨고,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요일 1:6-7

6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엡 5:7-10

7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9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10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 동물(레 11:9)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시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조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다. 지느러미는 물고기에게 움직일 힘을 주고, 비늘은 소금에 절지 않도록 물고기를 보호해 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 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절여지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6 장, 362-36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친구들과 이웃들, 심지어 친척들을 주의하라. 어떤 이들은 …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 문 두드리기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큰 비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소금에 절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생명의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들(비교 레 11:13-19)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생명에 속한 것들을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삼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반대로 레위기 11 장 13 절부터 19 절까지에 언급된 부정한 새들은 씨를 먹지 않는다. 생명의 씨가 부정한 새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새들은 사체를 먹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개가 있고 생명의 씨를 먹는 새들과 같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생명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심지어 다른 믿는 이들을 접촉할 때조차도 그들이 씨를 먹는 참새와 같은 정결한 새들인지 아니면 죽음에 속한 것을 먹기 좋아하는 수리매와 같은 부정한 새들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부정한 새들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입맛에 영향을 받아 결국에는 우리도 부정한 새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죽음에 속한 것을 먹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날개가 있고 또 땅에서 뿔 수 있도록 그 발 뒤에 관절 있는 다리가 있는 곤충(레 11:21-22)은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일 수 있으며, 세상에서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 곤충들로 상징되는 종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적이거나 죄가 있거나 육체에 속한 것들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여 날아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서 관절 있는 다리가 있어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날거나 뿔으로써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뿔 수 있고 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날개나 관절 있는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떠날 수 없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세상에 머무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에게 갈라진 굽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되새김질을 하는가? 그들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가? 그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가? 그들은 죽음에 속한 것들을 먹지 않고 생명의 씨를 먹는가? 그들에게 날개와 관절 있는 다리가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방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부주의하게 다른 이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며, 부주의한 방식으로 친구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지적하듯이, 부주의한 친구 관계는 우리를 부패시킬 것이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6 장, 363-36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 13-14 장; 하나님을 누리는 길, 2, 10-11, 14 장

10/22 토요일

### 아침의 누림

신 12:5-7

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6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7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

시 132:13-16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다네.

14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

15 내가 이곳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며 이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16 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치리라.

시 133:1-3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누림의 문제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진보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없으시며,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물처럼 완전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아야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 자신을 누리고 흡수하고 취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 이 두 중점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5 장, 10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는 두 면이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면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던 시간과 장소가 어떠하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또 다른 면은 그리스도의 최상의 몫, 특별히 뛰어난 몫, 곧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만 이 방면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가질 수 있다. ... 그리스도는 항상 같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는 특별히 뛰어난 몫과 일반적인 몫이 있다. ... 여러분은 차를 몰고 갈 때에도 그분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최상의 몫을 결코 혼자서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삼 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부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특별히 뛰어난 몫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몫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인 교회에 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두 가지 방식으로 누릴 수 있었다. 일반적인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과도 좋은 땅의 풍성한 산물의 일반적인 몫을 누리는 것이었다. 특별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에서 최상의 몫, 즉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을 누리는 것이었다. 이곳의 두드러진 특징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에도 두 면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반적인 면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특별한 면이 그것이다. 이 유일한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

우리는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누림을 체험해 왔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올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고 풍성하게 누린다. 우리는 모두 개인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대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생활에서의 누림이 공동의 생활인 교회생활에서의 누림을 대처할 수 없다.

교회생활에서의 누림은 개인 생활에서의 누림과 비교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개인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맛은 교회생활에서의 것처럼 달콤하지 않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최상의 몫을 누리기 위하여 집회에 참석하기를 갈망 한다. ...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다소 빈약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누리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단체적으로 그분을 누리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3 권, 청년들을 위한 훈련, 13 장, 643-6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4 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 17 장

**2022. 10. 17 ~ 2022. 10. 22**

단체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년, vol. 1,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헌신", 3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6장; 생명의 체험과 성장, 3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장

**찬송: 1143 (英) 오 달콤한 생명나무 생명인 하나님**

1 오 달콤-한 생명나무 생명인- 하나님  
죽었-던- 나 살아-났-네 그 실과- 먹고서.

- 2 주 하나-님 날 이끄네 생명나-무 앞에  
귀한- 실-과 나 먹-으-니 이는 그-리스도.
- 3 참된 양-식 생명 공급 이는 곧- 주 예수  
참된- 누-림 되신- 주-만 날 만족-케 하네.
- 4 값없이- 생명나무를 먹는 게- 길일세  
주를- 먹-는 그 사-람-은 주로 인-해 사네.

**10/23 주일**

아침의 누림

계 2:1-7

- 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 2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
- 3 또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 내었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 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 6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네가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